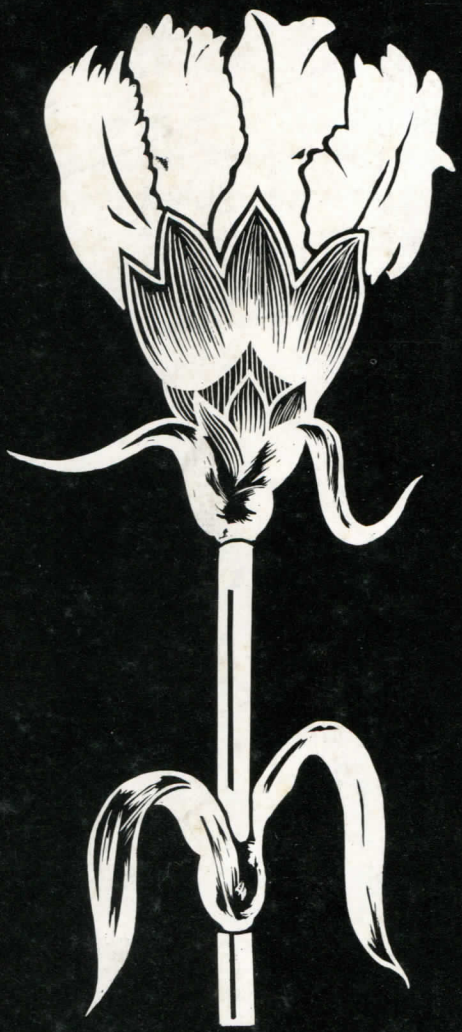
제4회
부산연극제



시민회관소강당

'86. 3. 21~4. 5

(오후 4 : 30, 7 : 30)

- 주최 / 부산직할시
- 주관 / 한국연극협회부산지부
- 후원 / 문예진흥원　예총부산지부
  부산일보사　부산시교육위원회
  부산문화방송 KBS부산방송본부

劇團 前衛舞台

제4회 부산연극제참가
제43회 정기공연
공 연 보

山지기네

(86년 3월 21일~22일 시민회관소극장)

전 전 동 수 / 작

전 성 환 / 연출

	공 연 일	작 품 명	작 가	기 획	연 출	출 연 자	장 소
1 회	64. 7. 28	불모지	차범석	박광웅	채동근	김규상·이군자·김수연·장고웅·이희순 권의웅	부일 푸레스홀
2 회	65. 2. 27	성난얼굴로 돌아보라	존·오스본	〃	〃	전성환·박영웅·이군자·박윤아·권이웅	〃
3 회	65. 7. 22	햇빛속의 건포도	로레인·핸즈베리	〃	〃	전성환·이군자·김수연·원경연·조순미 허영길	〃
4 회	65. 12. 22	빠스정유소	윌리엄·인지	〃	〃	김성철·방성진·이군자·백 웅	천보극장
5 회	66. 5. 3	청혼 공보부신인예술상참가	안톤·체홉	전근섭	〃	박영운·박윤아·석 운	서울 국립극장
6 회	74. 4. 28	도적들의 무두회	장·아누이	전승환	허영길	전승환·정해숙·장미화·한상길·이정갑 정미령·주용욱·구영희·김옥길	시민회관
7 회	75. 6. 14	토끼와 포수	박조열	〃	〃	정해숙·장미화·전성환·이상복·천병란 이정갑	〃
8 회	75. 12. 20	교수대의 유우머	팩·리처드슨	〃	〃	박정수·이상복·전성환	부산 미국공보원
9 회	75. 12. 27	도깨비 우화	하유상	전근섭	〃	이상복·박정수·전동수·정써홍·이정갑 김혜진·김세동·주용욱·전성환	시민회관
10회	76. 2. 26	교수대의 유우머	팩·리처드슨	전승환	〃	박정수·이상복·전성환	밀양문화관
11회	76. 6. 24	알고 난뒤의 충격	로버트·앤더슨	전근섭	전성환	정서홍·이상복·전성환·박정수	부산 미국공보원
12회	76. 7. 3~6	『벽』	J.P 싸르뜨르	〃	허영길	이상복·박정수·전승환·계홍열·전동수 전성환	시민회관
13회	76. 7. 28	알고 난뒤의 충격	R. 앤더슨	〃	전성환	정서홍·이상복·전성환·김혜진	〃
14회	77. 6. 24~30	내 사랑 마리	지인·커	원창호	전근섭	안광영·전성환·박정수·이상복·박 숙 김철숙·정서홍·이창희·전승환	〃
15회	77. 11. 20~22	맹진사댁 경사	오영진	전근섭	허영길	전성환·안관영·이상복·조유진·박정수 김철숙·전동수·이선주	〃
16회	78. 4. 13~15	버스·스톱	윌리엄·인지	전성환	나사랑	박 숙·이돈희	〃
17회	78. 5. 3~8	출발·너도 먹고…	윤대성	신태범	허영길	이상복·김의섭·박 숙·김경화·김정희	〃
18회	78. 12. 30~23	黑道	김행호	전복준	전승환	전성환·전동수·조남수	까페·떼아뜨르
19회	79. 5. 23	알고 난뒤의 충격	로버트·앤더슨	전근섭	전성환	정서홍·전승환·박 숙·전성환	미국문화원
20회	79. 6. 1~6	세일즈맨의 죽음	아서·밀러	전승환	전승환	전성환·박 숙·이창희·정서홍·전근섭 전동수 外	시민회관
21회	80. 5. 21~24	알고 난뒤의 충격	로버트·앤더슨	김상진	전성환	전성환·정서홍·주도순·전승환	청탑그릴
22회	80. 6. 28~30	길목	강하영	조기성	전승환	전성환·정서홍·전동수·우지훈·송순임 이창희·박명숙·박옥희·주홍일·이덕유	시민회관
23회	80. 7. 21	알고 난뒤의 충격	R. 앤더슨	전승환	전성환	전성환·정서홍·전승환·박명숙	까페 로따리아
24회	80. 8. 28~30	새	오영수	〃	〃	전성환(모노드라마)	까페 로따리아
25회	장기공연	〃	〃	〃	〃	〃	〃
26회	80. 11. 24~27	교수대의 유우머	팩·리처드슨	조득춘	전근섭	전성환·이창희·박정수·배 완	〃
27회	81. 9. 13~14	땅으로 가는 사람들	임인애	윤원구	이봉수 임인애	최웅·이정혜·윤양임·정혜경·이창복外	시민회관
28회	81. 10. 8~10	사랑1961	양왕용	원창호	전승환	전성환·정서홍·전동수·전근섭·전복준 박은옥	시민회관
29회	81. 12. 18~20	아일랜드	아돌프 가드	정혜경	이창복	이창복 外1	까페 떼아뜨르
30회	82. 3. 12~16	그늘	임인애		임인애	전위무대극예술연구회	미화예식장
31회	82. 5. 1~2	빌라도의 고백	이진수	전승환	전성환	전성환(모노드라마)	카토릭센타 소극장
32회	82. 5. 13~18	세일즈맨의 죽음	아서·밀러	조득춘	전승환	전성환·송순임·전근섭·정서홍·이창희 장두종·전복준 外 다수	시민회관
33회	82 10. 10 11	유다의 배신	양왕용	조유진	전승환	전승환·김상진·이창희·송순임·박은옥	시민회관
33회	83. 5. 2~4	토끼와 포수	박조열	조득춘	전승환	전성환·송순임·전동수·전근섭·박은옥 조홍일·이분임·이창희	시민회관
35회	83. 10. 26~28	山지기네	전동수	〃	〃	전성환·박정수·이상준 外	시민회관
36회	83. 12. 4	〃	〃	〃	〃	〃	동주여상
37회	84. 3. 25~27	성모의 기사	노혜경	〃	〃	전성환·이상준·조득춘 外	시민회관
38회	84. 4. 27~5. 6	〃	노혜경	〃	〃	〃	〃
39회	84. 10. 5~7	꽃게의 울음	윤진상	원창호	전승환	전성환·이상준·송순임·홍성표·공운주 김현신·이승훈	시민회관
40회	85. 4. 4~5	깡통들의 행진	정 구	원창호	전승환	전성환·전근섭·송순임 외 다수	시민회관
41회	85. 6. 6~9	벽	J.P싸르트르	전승환	전성환	전성환·이상준·전근섭 외 다수	시민회관
42회	85. 10. 8~9	딩동댕	민웅기	전승환	조득춘	박정수·송순임·홍성표·김원중	시민회관

■ 대표 / 연출의변

全 盛 煥

극단대표
연극협회부산지부고문
예총부산지부부지부장

모든이가 하나되게

광복이후 우리의 문화예술은 많은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다. 그것은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민족적 긍지로서 문화 예술인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억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문화적 정신을 바탕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서 일제하의 억압적이었던 여러 요소들이 잔재함으로써 자유로운 우리의 것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경우를 공연법 개정으로 없앴던 것이다.

공연예술에 대한 보호육성책으로서 연극 공간의 자유화, 공연자 등록규제삭제, 요금인가의 자유화 등 그야말로 발전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 내가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가"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적인 확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집결의 계기가 되었는지" "연극인 스스로의 질서에 의한 자율이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연법개정 이후 부산시에 등록된 26개의 연극단체가 관객에게 고통을 준 일은 없는지를….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창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마음의 눈에만 진실된 모양을 나타내는 예술.

「산지기네」를 통해서, 별빛처럼 아름답고 알차고 영롱한 인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난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 대사와 거치른 호흡소리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현실의 것과는 판이한 속도로 이끌어 가고, 침묵을 통하여 끝없는 내면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제4회 부산연극제」에 참여하는 모든이들이 하나되기를 바라면서….

"보다 많은 관중과 더불어 함께 웃음을"

캐스트

산지기 김씨 / 전 성 환
아내 / 송 순 임
복동 / 이 상 준
복식 / 전 근 섭
복녀 / 김 미 희
면장 / 홍 성 표
이장 / 조 민 기

전 성 환

전 근 섭

송 순 임

이 상 준

홍 성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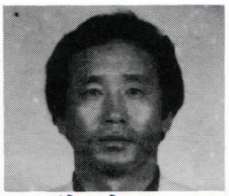
김 미 희

조 민 기

스타프

기획 / 원 창 호
무대미술 / 권 상 오
섭외 / 조 유 진
기록 / 공 은 주
장치 / 서 광 석
음향 / 도 인 봉
진행 / 진 충 희
조명 / 한 동 수
의상 / 최 정 숙
소품 / 강 경 애
김 원 중
분장 / 석 운

권 상 오


원 창 호

도 인 봉

서 광 석

김 원 중

공 은 주

최 정 숙

강 경 애

● 연극은 인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도장이며 신앙이며 종교이다 –쉘러